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이 규 미†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 즉 학교적응의 영역과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개관하여 학교적응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그리고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나누고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문항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여 160문항의 예비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5명의 상담, 임상 전문가들이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이중 113개의 문항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학생의 학교적응 질문지를 중학생 참여자 726명(남 428, 여 298)에게 실시하여,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각 영역별 하위차원 8개(학교공부,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학교교사, 교사호감, 친밀감/ 학교생활, 질서, 규칙준수/학교생활만족)를 포함하는 중학생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도를 작성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담임교사들이 응답한 행동 평정과 학교생활지표(성적, 출석상황, 징계유무) 등의 행동 준거들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학교상담에서의 활용가치,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

주요어 : 학교적응, 구성개념, 중학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학교적응질문지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규미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규 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전화 : 031-219-1792, E-mail : kmee@ajou.ac.kr

학교적응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창시절이 끝날 때 까지 아동,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 학교적응이 연구변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이다. Missall (2002)은 영어권내에서 학교적응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논문이 3,068편에 달한다고 그 방대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이렇게 연구변인으로 자주 사용되는 현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Missall은 이들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교적응의 개념이 연구자 마다 다양하고 대부분 심리적 상관관들 혹은 가설적 개념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정의와 측정이 어렵고 이를 개입방법과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 역시 개인특성 및 심리적 변인, 부모 혹은 가정변인, 친구 및 교사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취도 등의 관련변인들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적응은 거의 모든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이미 검증되어 왔을 정도이다(이규미, 2004). 이렇게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학교적응을 독립 혹은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적응에 대한 관점이나 이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도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학교적응은 추상적 사고를 담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차원 속에는 구체적인 근거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홍성열, 2001). 관련문헌에 나타난 학교적응의 개념, 차원, 지수

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가설적 정의를 통해 학교적응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적 정의는 대부분 측정이 가능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인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적응을 여러 개의 하위차원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하위차원을 제시하여 정의하는 방법, 셋째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수로 학교적응을 대신하는 방법 즉 여러 가지 관련지표로 학교적응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된다. 첫째 범주에 속하는 가설적 정의의 예를 들면, 김용래(1993)는 학교적응을 태도와 구분하면서 태도는 순수한 정의적 특성이지만 적응은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의 특성을 공유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학교적응에 대해 ‘학습자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교육적 여건을 자신의 요구에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에 관련된 제반조건을 바르게 수용하여 학교상황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시도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 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5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미라(2000)는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의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을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차원으로 제안하였다.

문은식(2001)과 차유림(2000)은 Lazarus(1976)의 적응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한다. Lazarus는 적응이란 자신의 필요 뿐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주는 능력으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 개인의 투쟁이라고 설명한다. 즉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두 방향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과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관계라는 것이다. 차유림(2000)은 이러한 개념을 학교환경에 한정하여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은식(2001)은 국내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 내재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외현적 행동 영역으로 수업참여도와 같은 학업적 적응행동과 교실규칙을 잘 지키는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행동을, 그리고 내재적 적응행동으로 학교선호, 학교생활만족과 같은 정의적 적응행동을 하위차원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가설적 정의는 측정가능하고, 개입 가능한 개념을 통해 증명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가설적 정의를 내리고 하위차원을 구성하여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적응을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나 지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통해 학교적응을 정

의하는 순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범주의 정의는 학교적응에 대한 가설적 정의를 배제하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차원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적응을 조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려는 시도이다. Missall(2002)은 유치원아동대상의 학교적응에 대해 학업기술(읽기능력, 이룸쓰기)과 사회적 요구(또래, 어른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정서표현, 동조, 문제해결, 규칙이해 등)에 대한 능력이 핵심적요소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 보였다. 정순례(1992)는 학교적응을 학교에 대한 선호, 교사에 대한 선호, 학교에서의 활동성, 학교에서 느끼는 감정 및 영향력, 친구관계 지각으로, 김용래(1993)는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김지혜(1998)는 수업참여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문제행동으로, 그리고 김용래와 허남진(2003)은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친구, 교사, 학교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Wentzel(2003)은 사회적 동기, 행동적 유능성, 긍정적 대인관계로 정의를 했는가 하면, Simon-Morton와 Crump(2003)은 여러 가지 학교활동(숙제하기, 규칙 지키기, 친구 만들기 등)을 포함하는 학교적응, 학교에 대한 참여도, 학급풍토로, 그런가 하면 Berndt 와 Keefe(1995)는 학교적응은 복잡한 양상을 가진 광범위한 구성개념이라고 전제하고, 선행연구에 의해서 강조되어온 수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적절한 수업 행동, 특히 방해되는 행동의 부재, 그리고 성적표로부터 판단된 학업성취의 세 가지 측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본 연구와 대상이 같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해 연구한 Roeser와 Eccles(1998)는 학업적인 적응(학업적인 자기개념, 교육의 가치, 수

업이탈 혹은 결석), 심리적인 적응(자기존중감, 분노, 우울증상), 학교지각(학생의 자율성, 학교 능력목표의 구조, 학교과제목표구조, 교사의 긍정적인 관심)으로 학교적응을 측정하였다. 또한 Jiao(1999)도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해 학급활동에 긍정적인 참여, 학교에 가치를 두는 정도(자기보고)와 교사평정에 의한 참여도, 방해 행동, 성적의 요소를 포함시켜서 측정하였다. 이밖에 Kurdek, Fine, 그리고 Sinclair(1995)는 학업성적, 기초지식에 대한 성취도, 문제행동 등 세 가지 측면에 의해, DuBois, Eitel 그리고 Felner(1994)은 학업성적, 학교출석일, 학습에 관련된 자아개념 등으로 학교적응을 개념화 하였다. 이러한 하위차원들이 학교적응을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사용되어 왔으나 유아들의 학교적응의 핵심요소가 학업기술과 사회적 요구임을 입증한 Missall(2002)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의방식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검증과정이 포함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가 하면 학교적응의 구성요소를 제안하기 보다는 학교적응과 직결되는 핵심차원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유능성이다. Missall(2002)도 유아들의 사회적 요구와 학업기술에서의 유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Connell과 Wellborn(1991)에 의하면 학생들은 긍정적인 지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교사들이 구조(예, 기대에 대한 명백하고 지속적인 표현), 자율성에 대한 지지(예, 개인적 선택과 결정 기회), 그리고 참여(예, 개인적 주의)를 제공할 때 긍정적인 자기감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학생들의 유능감, 자기결정감, 사회적 연결감(개인이 사회적 집단에 통합되고 가치가 있는 일부라는 느낌)에 기여함

으로써 적응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적응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점은 연구자마다 다양하지만 학교적응에는 학교(학교생활, 학교환경, 학급풍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교사와 친구관계 적응, 수업적응 및 참여도, 문제행동이나 방해 행동의 부재 등이 핵심을 이루며, 학업성취 및 학교에서의 유능감도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시 학교공부 영역, 학교친구 영역, 학교교사 영역,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 영역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유능성, 참여도, 긍정적인 감정, 사고, 지각 등과, 교사평가 혹은 실제 행동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행동의 부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적응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법은 학교생활 지수나 적응지수가 곧 학교적응의 증거라고 보는 견해이다. Carlson 등(1999)은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올해의 출석률, 학업수행, 혼육문제(문제행동 횟수나 심각성), 대안적이고 특별한 교육상태(대안적 배치의 이유 포함), 구치이력에 대한 상담가의 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연구결과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좋은 출석률, 학업 우수, 그리고 혼육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수로는 성적(김지혜, 1998; Berndt & Keefe, 1995; Berndt & Mekos, 1995; Kurdek & Sinclair, 1988), 출석률(Carlson et al., 1999; DuBois, Eitel, & Felner, 1994), 문제행동목록이나 혼육문제 유무(문제행동, Cowen, Work, Wyman & Jarrell, 1994; Kurdek & Sinclair, 1988, 혼육문제, Carlson et al., 1999; Flanagan & Eccles, 1993), 교사의 평정점수(Jiao, 1999; Berndt & Mekos, 1995; CBCL, Bronstein et al., 1996), 또래 인기도(Bronstein et al., 1996)가 사용된다.

Walker와 McConnell(1995)은 교사가 평정하는

사회적 유능성과 학교적응 척도(청소년용)를 개발하였는데, 하위영역 중 또래관계, 학교적응 영역이 학교적응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규미(2004)가 요인분석을 통해 수업 및 학업관련행동, 문제행동, 교우관계, 공격/적대적 행동, 교사관계, 우울반응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중고생의 학교부적응 행동지표(교사평정방식) 31개 문항을 추출해 내었다.

이렇게 학교적응에 대해 정의하는 방식과 하위차원, 측정지수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저마다의 관심에 따라 학교적응을 정의하고, 임의로 정한 차원과 지수에 의해 학교적응을 규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정작 학교 현장에서 학교적응의 발달을 돕고,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지도하는 데에는 크게 활용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Wentzel(2003)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교적응은 종종 학생에게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부적응적인 결과(공격적, 부주의적, 방해 행동)의 부재와 규범적, 긍정적 유능함(협동적, 순종적, 자기 규제적 행동)의 존재라는 점에서 정의되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형식적인 정의는 건강한 학교적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발달하는지, 교실환경 안에서 어떻게 지원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학교적응은 특히 학교상담분야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다뤄져야 할 연구주제로 그 개념정의와 측정에 대한 성과는 학생들의 적응수준을 평가하고 개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중학생 시기가 학교적응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

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김용희(1989)는 학교에서 제적 처리된 학생 및 자퇴중학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2부터 무단결석, 가출의 행동문제와 징계가 나타났다. Roeser와 Eccles(1998)는 선행연구를 통해 초기 청소년기간 동안 학업적, 심리적 기능에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7학년 초에서 8학년 말까지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학업적 능력과 학교가치감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이 낮아지며, 수업이탈, 무단결석, 그리고 분노감정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imon-Morton와 Crump(2003)도 연구결과를 통해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적응과 참여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구성개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학생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학교적응의 기본적인 하위영역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로 크게 나누고 각 영역 별 하위요인간의 구조를 탐색한 뒤, 다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 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평정에 의한 학교부적응 행동과 교사로부터 확인한 학업성적, 출결상황, 징계유무를 통해 준거타당도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이 확인되면 그를 기초로 학교적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로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7개 중학교 학생들 726명으로 이들 중 428명(59%)이 남학생, 298명(41%)이 여학생이고, 268명(36.9%)이 1학년, 258명(35.5%)이 2학년, 그리고 200명(27.5%)이 3학년이었다. 설문지는 769부가 회수 되었으나 이중 불성실한 응답 43부를 제외하고 726부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행동에 대한 평정에 참여한 교사는 중학교 담임 교사 19명(성별 남 9, 여 10명; 연령 20대 5명, 30대 10명, 40대 4명; 교육경력 5년 미만 6명, 5-10년 4명, 11-20년 미만 9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 들이 평정한 학생수는 전체 360명으로, 평균적으로는 교사 1인당 19명이었다.

도구 및 절차

학교적응 질문지 구성 및 전문가 문항검토

학교적응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을 크게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로 나누고 김용래(1993), 김지혜(1998), 문은식(2001), 유윤희(1994), 이미라(2000), Aunola, Stattin와 Nurmi(1999), Jiao(1999), Roeser와 Eccles(1998), Simon-Morton와 Crump(2003)의 문항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교사평정척도인 Walker와 McConnell(1995)의 Walker-McConnell scale of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adjustment (Adolescent version) 중 또래관계와 학교적응문항을 참고하여 학생자신이 응답하는 척도로 내용을 바꾸어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여 4개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160문항을 작성하여 예비

질문지를 구성했다. 그리고 5명의 전문가(4명은 상담심리학 박사로서 2명은 청소년상담기관 근무자이고 2명은 과거 청소년상담기관 근무경력자로 현재는 대학상담소 근무, 1명은 임상심리학 박사로서 청소년임상 전공, 현재 지역정신보건센터 근무)에 의해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문항검토는 각 문항에 대해 적절, 부적절로 답하는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문항기술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교 난에 참고할 내용을 적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작업에서 2인 이상 부적절하다고 판정한 문항 9개를 삭제하고, 1인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문항에 대해 연구자가 재검토 후 삭제 혹은 수정하였으며, 중복된 질문의 문항으로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13개 문항(학교공부 28문항, 학교친구관계 34문항, 교사관계 30문항, 학교생활 21문항)이 채택되었고 이 문항을 내용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답하는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학교적응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구성개념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4영역, 1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중학생 학교적응 질문지를 2004년 12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중학생 참여자 전원(726명)에게 실시하여 문항-총점 간 상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이 .30 미만인 문항들을 제거하는 신뢰도 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68개의 문항들(학교공부: 16문항, 학교친구: 18문항, 학교교사: 20문항, 학교생활: 14문항)이 선정되었다. 68개로 재구성된 중학생 학교적응 질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나타난 각 영역별 하위차원(영역별 각 2개, 총 8개 차원)을

포함하는 중학생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도를 작성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학교적응구성개념과 학교부적응행동지표, 성적, 출결, 징계의 관계분석

또한 담임교사는 각 학급에서 짝수 혹은 홀수 번호의 학생을 일괄적으로 선별하여 학급 학생의 절반 정도의 학생들에 대해 행동평정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규미(2004)의 학교부적응행동지표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교사 1인당 행동지표를 평정한 평균 학생수는 19명이고, 전체 학생수는 360명이었다. 학교부적응행동지표는 중, 고등학생의 행동에 대해 담임교사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다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수업 및 학업 관련행동(5문항 $a=.78$), 문제행동(10문항 $a=.92$), 교우관계(4문항 $a=.76$), 공격/적대적 행동(4문항 $a=.88$), 교사관계(3문항, $a=.85$), 우울반응(5문항 $a=.83$)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제시한 신뢰도(Cronbach α)는 본 지표를 요인분석으로 추출해 내는 연구과정(이규미, 앞의 글)에 참여한 562명의 중, 고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얻은 수치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가 .92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설문지와 더불어 각 학생들에 대해 성적(학급석차 0명 중 0등), 출결상황(지난학기 동안 결석유무), 징계유무(지난 1년간 공식적인 징계유무)를 답하도록 하였다. 즉 성적은 좋을수록 낮은 석차로, 결석과 징계는 없을 경우 0로, 있을 경우 1로 점수화하여 학교적응과 부적상관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학생과 교사의 질문지를 연결시켜 식별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는 모두 해당학

생의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별을 질문지에 적도록 하였다. 학생이 응답한 학교적응 질문지의 구성개념 모형도에 교사가 평정한 부적응행동지표와 성적, 출결상황, 징계유무를 포함시켜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한 모형도를 완성하였으며, 구조방정식에 의해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전문가의 문항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구성한 중학생 학교적응 질문지 68문항에 대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 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하였고 파라미터는 .5를 주었다. 사각회전 결과 공변량이 .30미만이고 패턴행렬(pattern matrix)에서 2개 이상의 요인에 공통으로 부하되어 요인규명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30개의 문항들을 제거하여 최종 38문항을 선정하였다(학교공부: 8문항, 학교친구: 10문항, 학교교사: 10문항, 학교생활: 10문항). 최종 선정된 38문항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90 이었고, 학교공부 .77, 학교친구 .81, 학교교사 .86, 학교생활 .80 으로 각 영역별로도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38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각 영역에서 2개씩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에 대해 문항내용을 반영하는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즉 학교공부영역의 2개 하위요인에 대해 학업수행(5문항, $a=.70$)과 학업태도(3문항, $a=.77$)로, 학교친구영역의 2개 하위요인을 친구관계(5문항, a

표 1. 중학생의 학교적응 질문지의 요인구조

영역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요인 부하값	설명량 (고유값)		
학교공부 (a=.77)	학업유능감 (a=.70)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777	39.165 (3.133)		
		14.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익힐수 있다	.731			
		22.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650			
		3.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630			
	학업가치 (a=.77)	20.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있다	.507			
		23. 학교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832			
		9.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831			
		17.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 한다	.802			
		학교친구 (a=.81)	54.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857	38.389 (3.839)
			55.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831	
43.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635					
32.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490					
3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467					
40.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 한다	.790					
상호협조성 (a=.71)	45.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628	10.979 (1.098)			
	42.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 한다	.589				
	44.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 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583				
	41. 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569				
	67.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843				
학교교사 (a=.86)	교사호감 (a=.83)	64.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 한다	.784	45.186 (4.519)		
		66.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730			
		69.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728			
	교사친밀감 (a=.78)	76.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604			
		84. 우리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569			
		71.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856			
학교생활 (a=.80)	질서/규칙 준수 (a=.82)	83.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742	37.167 (3.717)		
		87.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 할 수 있다	.711			
		65.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685			
	학교생활 만족 (a=.60)	96.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한다	.748			
		97.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700			
		107.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674			
		113.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664			
99.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 한다	.663					
94.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 한다	.656					
101. 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639					
학교생활 만족 (a=.60)	105.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831	13.508 (1.351)			
	106. 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777				
		111.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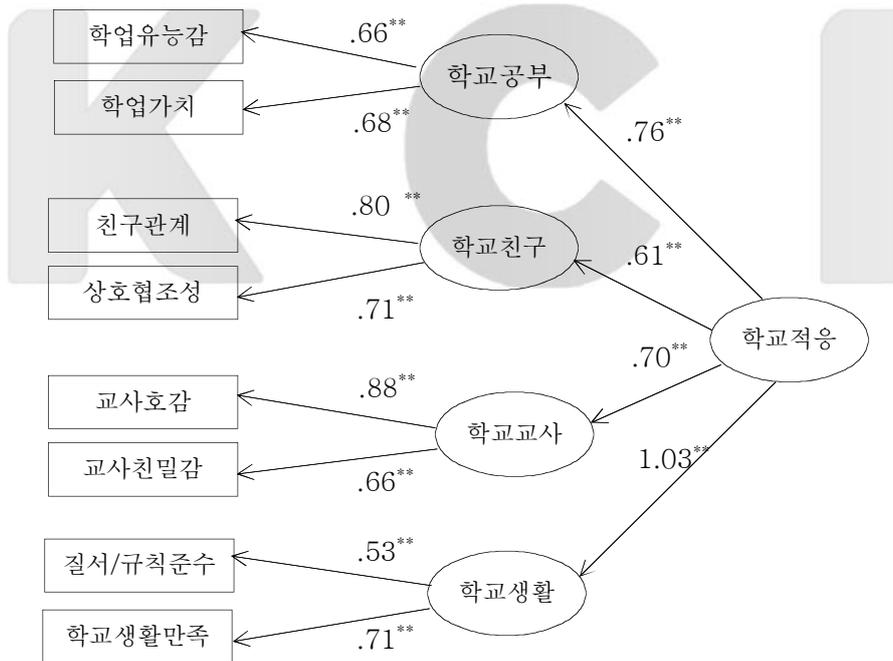
표 2. 중학생의 학교적응 질문지의 요인 간 상관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기타 학교생활
학교공부	1.000			
학교친구	.359**	1.000		
학교교사	.523**	.355**	1.000	
기타 학교생활	.557**	.428**	.534**	1.000

** $p < .01$.

=.76)와 상호협조성(5문항, $\alpha=.70$)으로, 학교교사영역의 2개 하위요인을 교사호감(6문항, $\alpha=.83$)과 교사친밀감(4문항, $\alpha=.78$)으로, 학교생활영역의 2개의 하위요인을 학교규칙(7문항, $\alpha=.82$)과 학교적응(3문항, $\alpha=.60$)으로 명명하여 4개 영역과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중학생 학교적응질문지가 작성되었다. 학교적응 질

문지의 요인구조와 문항은 표 1과 같다. 또한 각 요인 간 상관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교공부는 학교생활, $r=.55, p < .01$, 학교교사, $r=.52, p < .01$, 학교공부, $r=.35, p < .01$, 학교친구는 학교생활, $r=.42, p < .01$, 학교교사 $r=.35, p < .01$, 학교교사는 학교생활, $r=.53,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 $p < .01$.

그림 1.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의 요인구조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는 χ^2 검증, 표본의 영향을 덜 받는 CFI(comparative fit index),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인 NNFI(normed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했다. CFI와 NNF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이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 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지표인 χ^2 검증 결과가 유의하게 나와 요인구조 모형의 귀무가설을 부정했다($\chi^2=278.89, p<.01$). 그러나 독립모형과 비교해 유의하게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고(CFI=.988, NNFI=.978), 모형의 간명성이 좋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RMSEA=.097) 설문지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최종적으로 검증되었다(그림 1).

그러므로 중학생의 학교적응은 학교공부(standardized $\beta=.76, p<.01$), 학교친구(standardized $\beta=.61, p<.01$), 학교교사(standardized $\beta=.70, p<.01$), 기타 학교생활(standardized $\beta=1.03, p<.01$) 등 4개의 영역과 그에 따른 각 하위요인들, 첫

째, 학교공부는 학업유능감(standardized $\beta=.66, p<.01$)과 학업가치(standardized $\beta=.68, p<.01$), 둘째, 학교친구는 친구관계(standardized $\beta=.80, p<.01$)와 상호 협조성(standardized $\beta=.71, p<.01$), 셋째, 학교교사는 교사호감(standardized $\beta=.88, p<.01$)과 교사친밀감(standardized $\beta=.66, p<.01$), 넷째, 학교생활은 질서/규칙준수(standardized $\beta=.53, p<.01$)와 학교생활만족(standardized $\beta=.71, p<.01$)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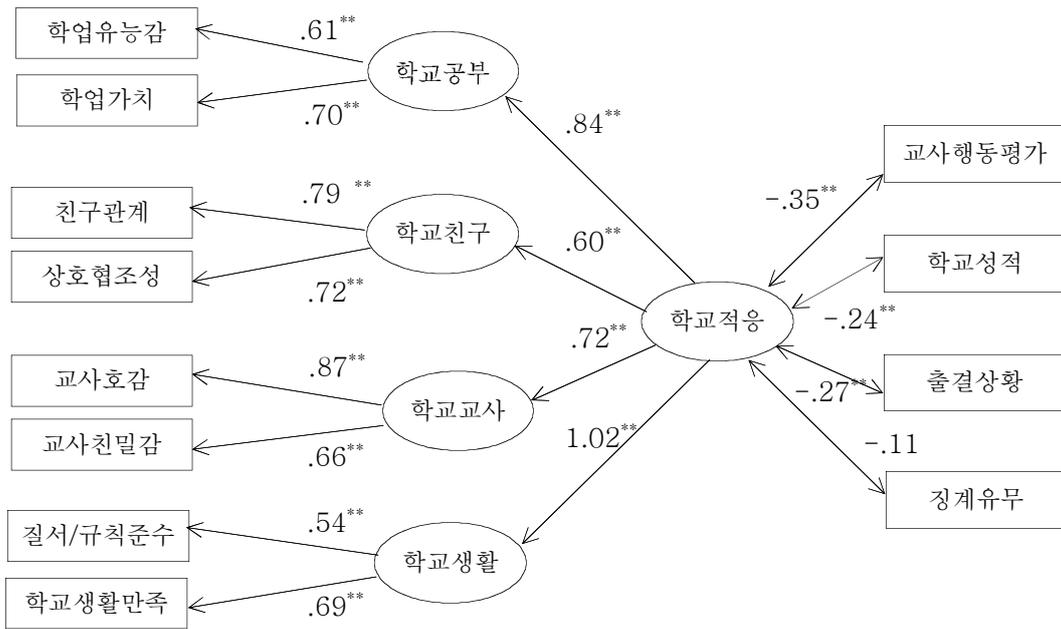
학교적응구성개념과 학교부적응행동지표, 성적, 출결, 징계의 관계분석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적응이 교사들의 행동평가, 그리고 성적, 출결상황, 징계유무 등 실제적인 행동준거들과 얼마나 상호상관이 있는지 하는 준거관련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를 검증했는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적응질문지 결과는 교사가 평정한 학교 부적응 행동지표($r=-.35, p<.01$)와 실제 학업성적($r=-.24, p<.01$), 출결상황($r=-.27, p<.01$), 징계유무($r=-.11, p=.06$) 등과 의미 있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모형의 적합도도 검증되었다($\chi^2=325.93, p<.01$; CFI=.987, NNFI=.978; RMSEA=.094). 즉 이는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학급석차가 높고, 결석, 징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표 3.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NNFI	RMSEA(90%CI)
모형	278.89**	31	.988	.978	.097(.089-.109)

** $p<.01$.



** $p < .01$.

그림 2. 중학생 학교적응질문지와 교사의 행동평가, 성적, 출결, 징계유무와의 상호상관

표 4.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행동준거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χ^2	df	CFI	NNFI	RMSEA(90%CI)
모형	325.93**	44	.987	.978	.094(.085-.104)

** $p < .01$.

논 의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이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학교적응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고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다양성은 방대한 연구량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평가나 개념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매모호한 가설적 정의를 배제하고 학교적응을 보다 구

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개입에 도움이 되는 변인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 실제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모형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기본적인 하위영역을 설정한 후, 이 범주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위차원을 밝히는 접근 방식을 선택하였고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학교적응준거(교사평정, 성적, 출결상황, 징계유무)를 포함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서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으로 기본 영역과 하위 차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학교적응의 정의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학교적응 영역이나 관련변인, 측정문항, 지수 등이 광범위하여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기본 영역으로 폭넓게 설정하고,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들을 기본 측정치로 하여 학업 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 협조성,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질서/규칙 준수, 학교생활 만족의 하위차원의 요인들을 발견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가정하고, 다루어온 다양한 차원들 중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고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학교공부, 친구관계, 교사관계, 질서나 규칙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같은 학교생활 요인 등이 중요한 영역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둘째, 본 연구과정에서 학교적응의 구성개념을 발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적절성 검토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질문지가 구성되었고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거쳐서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중학생 학교적응질문지가 만들어졌다. 이는 신뢰도도 비교적 높고 교사가 평정한 학교부적응행동지표와 성적, 출결상황, 징계유무의 준거들에 의해서도 타당도가 검증된 질문지로,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해 어떤 영역, 어떤 문제에 개입이 필요한지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 질문지는 학교상담에서 유효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학교적

응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기존의 발표된 질문지의 문항을 임의대로 수정 보완하여 신뢰도만 확인하고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이 검사지 문항들은 이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쳤으므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엄격한 통계적 절차에 의한 확인 작업으로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성적, 출결, 징계유무 등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평가하는 지표로 매우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arlson 등(1999)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좋은 출석율, 학업우수, 그리고 혼욕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지수로 성적(김지혜, 1998; Berndt & Keefe, 1995; Berndt, & Mekos, 1995; Kurdek & Sinclair, 1988), 출석률(Carlson 외, 1999; DuBois, Eitel, & Felner, 1994), 문제행동목록이나 혼욕문제 유무(문제행동, Cowen, Work, Wyman, & Jarrell, 1994; Kurdek & Sinclair, 1988, 혼욕문제, Carlson et al., 1999; Flanagan & Eccles, 1993)를 포함시킨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학교적응의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며 상호상관이 있는 요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행동평가에서 교사평정자료가 매우 신뢰로운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교적응모형의 준거 타당화 과정에서 교사평정점수를 포함시켜서 확인한 결과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된 학교적응질문지와 의미 있는 상관이 있어서 교사평정점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부적응행동지표는 이규미(2004)에 의해 이미 탐색적 요인분석 수준의 검증절차

를 거친 것이므로 이 지표와 학교적응질문지의 의미 있는 상관은 역으로 학교적응질문지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교적응평가에 있어서 교사평정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 여러 연구결과들(Berndt & Mekos, 1995; Birch & Ladd, 1997;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Jiao, 1999; CBCL, Bronstein et al., 1996)과 일치된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적응의 구성영역과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평가하고, 개인에게 맞는 개입방법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각각 정보를 구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어느 한 편에 의한 평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 나타난 8개의 차원은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학교 내 주요변인으로, 학교 외 변인과 통합하면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모형도의 RMSEA 값이 .10수준은 넘지 않았으나 좋은 적합도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추후 관심을 기울여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에 의미 있는 다른 요인들이 영역을 한정하는 과정이나 문항채집 과정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정배경, 부모변인 등 학교 외적인 요인들이 포함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교적응구성개념에 관한 연구라고는 하지만 표집이 일정지역의 7개교에 편중되어 있어서 전체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후 학교적응질문지를 학교상담 장면에서 학교적응의 발달을 돕거나 평가하고 학교부적응문제를 예방 혹은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타당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용래, 허남진 (2003). 학습동기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제 20집, 5-24.
- 김용희 (1989).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과정과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지혜 (1998). 청소년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형진 (2003).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 분석-범주형 데이터 분석 및 공분산구조분석. 형설출판사.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윤희 (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규미 (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27-241.
-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 정순례 (1992). 현실요법에 근거한 학습방법이 중학생의 교과 및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차유림 (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열 (2001).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시그마프레스.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unola, K. Stattin, H., & Nurmi, J-E. (1999).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school adjust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289-306.
- Berndt, T. J., & Mekos, D. (1995).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stressful and desirable aspects of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5(1), 123-142.
- Berndt, T.,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Birch, S., & Ladd, G.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ronstein, P., Du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Frankowski, B., Franco, O., Hunt, C., & Cha, S. Y. O.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5, 415-426.
- Carlson, E. A., Sroufe, L. A., Collins, W. A., Jimerson, S., Weinfeld, N., Hennighausen, K., Egeland, B., Hyson, D. M., Anderson, F., & Meyer, S. E. (1999). Early environmental support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1), 72-94.
- Connell, J. P., & Wellborn, J. G. (1991). Competence, autonomy, and relatedness: A motivational analysis of self-system processes. In M. R. Gunnar & L. A. Sroufe (Eds.), *Self processes and development*(Vol. 23, pp-43-78).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Cowen, E. L., Work, W. C., Wyman, P. A., & Jarrell, D. D. (1994). Relationships between retrospective parent reports of developmental milestones and school adjustment at ages 10 to 12 years.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3), 400-406.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Flanagan, C. A., & Eccles, J. S. (1993). Changes in parents' work status and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4, 246-257.

- Ford, M. E. (1992). *Motivating humans: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CA: Sage.
- Israelashvili, M. (1997). School adjustment, school membership and adolescents' future expect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0, 525-535.
- Jiao, Z.(1999). *Friendship feature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Kurdek, L. A., & Sinclair, R. J. (1988). Relation of eighth graders' family structure, gender, and family environment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1), 90-94.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aw-Hill.
- Missall, K. N. (2002). *Reconceptualizing early school adjustment: a search for intervening variabl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imon-Morton, B. G.,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 Shechtman, Z. (2001). School adjustment and small-group therapy: An Israeli stu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 77-81.
- Tur-Kaspa, H., & Bryan, T. (1995). Teachers' ratings of the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with LD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8(1), 44-52.
- Roes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Walker, H. M., & McConnell, S. R.(1995). *Walker-McConnell scale of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adjustment: Adolescent version*. San Diego: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 Wentzel, K. R. (2003). School Adjustment. In W. M. Reynolds, G. E. Miller, & I. B. Wein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vol. 7. pp. 235-258).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원고접수일 : 2005.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5. 4. 11

게재결정일 : 2005. 5. 6

A Study of Middle-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Constructs

Kyu-Mee, Lee

Ajou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know what construct concepts our middle-school students have used for school adjustment, particularly areas and components of school adjustment. Based on preceding research on school adjustment, 4 areas of school study, school friend, school teacher, and school life are established. A 160-item prototype questionnaire was formed according to quoting or referring measurement items of preceding research before 5 experts in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investigating suitability of the items, ultimately selecting 113 items as a 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for the study. This questionnaire was tested of its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by trying 726 middle-school students (428 male students and 298 female students). Following 8 sub categories, which are school study: study adaptability and study value, school friend: friend relationship and mutual cooperation, school teacher: teacher preference and intimacy, and finally school life: order / rule observanc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consists essentially of middle-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model of the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rough i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fit of this trial model. It also revealed significant relation to behavior rating and school life index (academic result, presence / absence in school, disciplinary punishment, and etc.) from class teachers' response. In the end, the significance and its future application in school counseling were discussed along with restriction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ing the benefit of further work.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middle-school students,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